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7년 이사 와서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어머니와 14년째 거주 중이며, 14년 동안 소음에 시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윗집은 2020년 2월21일에 이사 온 후부터 극심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될 쯤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6세(작년) 여자아이, 7세(작년) 남자 아이들이 운동장,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고 물건을 바닥에 쿵하고 던지는 소리, 현관문 안쪽에 보조 문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고성, 식탁의자 끄는 소리 등 밤 11시경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남자)은 새벽 6시에서 6시 반 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가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도 같이 일어나서 계속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수면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뛰는 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낮잠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 피신청인(여자)은 낮에 아이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소음을 견딜 수 없어서 귀마개도 착용해 보고 동네를 돌아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엔 더 시끄럽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과 소리를 지르고 쿵쿵 뛰는 소리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작년 주말엔 가족들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놀아서 천정을 쳤더니 갑자기 피신청인 부부가 내려오더니 피신청인(여자)은 1층에 살았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신청인(남자)은 정작 사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신청인 가족은 소음이 나아지겠지 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비 대면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원분이 소음자제 권유로

2번 통화하고 경비원분이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를 주었으나, 지금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고 서울시 주택관리과에도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피신청인(남자)은 천정을 치면 오히려 발로 더 세게 여러 번(5번) 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봤다고 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서울시에서 먼저 방문하셨는데 상담 끝나고 가신 다음에 바닥을 몇 번 세게 쳤습니다. 그나마 조금 조용했습니다. 다음날부터 또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년 접수해라 우리는 뛰고 놀 거야 이란 식이었습니다.
- 1층에 살았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소음이 심해 생활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엔 피신청인(여자)은 조용히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남자는 아이들과 소리를 지르며 같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능적으로 거실, 작은방, 주방 등 세 군데 정도 위치를 옮겨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서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도 높은 편이고 심장도 좋지 않아 육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2020년 12월 17일에는 가족 4명이 웃고 떠들며 소리를 질러서 거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분이 출동하셨습니다. 경찰관 분한테 경고를 받고도 바닥을 치며 가족이 1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20년 12월 28일에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아파트 관리과장님과 여성 2분이 방문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출근시간(7시부터 준비)과 아이들 세면시간(저녁9시)과 취침시간(9시30분)을 거짓으로 일관해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위층에 먼저 들르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세분이 가자마자 아이들은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과장님이 작은방 사진과 매트 깔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작은방은 놀이

방처럼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방도 엄청 소란스러웠습니다. 매트가 아니라 리그 카펫이었습니다. 작은방이 제 방 바로 위라서 저는 계속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주방 쪽 매트도 테이프로 붙여 놓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뛰어다니니 방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 샤워 시간도 10시 근처 일 때가 꽤 있었는데 욕실에서는 여자아이가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낙하 음과 문을 쾅 닫는 소리에 놀라고 심장이 떨리는 증세가 있습니다.

- 2021년 1월 31일에는 거실에서 마치 볼링을 치는 소리가 나서 두 번째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니 계속 환호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쿵쿵 댔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올라가서 경고를 주고 간 후에도 바닥을 세게 치고 몇 분 정도 공 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 남자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태권도를 시작해서 기합소리를 내며 쿵쿵거렸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측정을 미루다가 집을 비우고 2021년 3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층간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고소음도가 나왔습니다. 13개월째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인이 신경질이 많이 늘어나고 어머니도 혈액투석 환자라서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다니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이사하면서부터 거실에는 매트(5cm)를 깔고 생활하였으며, 층간소음 민원을 받은 후에는 2cm 설치형 매트를 거실에서 주방까지 전부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5cm매트와 2cm 매트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슬리퍼도 사용하고 있음)
- 이사하기 前 세대 전부를 올 수리하고 입주한 관계로 미닫이문은 전부 최신식이어서 열고 닫는 소리가 적을 것이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방문에 손 끼임 때문에 평소에는 방문을 열고 생활합니다. 하루 한번 잠 잘 때만 안방 문을 닫고 여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아침기상은 평균 10시에 일어났으며, 일어나자마자 TV를 보기 때문에 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출근시간에 노래를 부르지도 않는데(피신청인은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함) 노래를 부른다며 허위진술을 했음
- 현재 피신청인 아내는 망치소리, 초인종 소리에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음. 위에서 들리는 “쿵”소리에도 망치소리 같고 바깥에서 학원 차 후진 소리에도 초인종 소리 같아 심장이 마구 뛰어 무섭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현관문 열 때 항상 밖을 조심해서 열고 있음(신청인이 망치를 들고 가해할 것 같음)
-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 장애, 입병이 빈번하게 발생, 목 걸림 현상, 위장장애를 겪어 상급병원까지 내원, 진료, 검사, 진찰까지 받고 약 복용 중에 있음. 피신청인 아이들은 신청인이 무서워 초인종 소리에도 놀라 방으로 숨으러 들어감. 그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매우 아픔, 초인종이 반가운 소리가 아니라 공포의 소리가 되어버림. 딸(7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신청인”이라고 함
-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쯤 시끄럽다며 올라와서는 신청인이 말끝에 피신청인에게 “너 내손에 죽는다!” 라는 협박의 말을 하며 고성을 질렀으며, 신청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 2020년 11월 9일 서울시 주택소음과 중재위원회에서 방문하였을 때 중재위원이 피신청인에게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권유하여 11월 20일에 거실부터 주방까지 매트를 깔고 저녁9시 이후에는 소음이 안 나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 신청인에게 요청한 사항은 소음이 발생하였을 때는 망치질은 절대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망치질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사용하는 방이 피신청인은 장난감 방으로 사용하고 있단 사실을 알고서는 장난감 방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을 옮기기 전에 옮긴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당일 신청인은 망치질을 했습니다. 또한 옮기는 도중 피신청인 아내가 허리를 빼끗하여 2주간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 2021년 3월 18일 오전 11시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고 피신청인 아내 혼자 장난감 방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신청인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난감 정리를 할 때 얼마만큼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인은 보통 세대와 다른 생활 패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단발성 소음에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 애들은 뛰어노는 것보다 게임이나 tv보는 것을 좋아하며 레고 같은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시켰음. 평일엔 코로나가 심했을 때 빼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원도 보내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였음
- 2020년 2월21일 이사 와서 주변 이웃에게 작은 빵과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밑에 층도 물론입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있어서 주의를 많이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손주도 비슷한 또래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매트(5mm) 깔고 생활을 했고, 중재기관에서 추가의 매트를 권장하여 주방에서 거실까지 공사형 매트를 깔고 거실엔 한 겹 더 두꺼운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두꺼운 매트와 바닥이 두툼한 슬리퍼로 인해 아이들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여 척추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으로 들어가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조심시키고 앉아서 활동하게끔

하였습니다. 주말엔 바깥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고 아이들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인터폰과 경찰의 출동, 보복성 망치질로 아이들도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보복성 망치질의 신고를 할까도 고려해보고 파출소에도 상담을 해보았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신고하면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웃이란 어떨지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잦은 인터폰과 보복성 망치질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

1. 저녁 9시에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재우려고 노력함(침대는 안방에서 4식구가 함께 사용 중임)
2. 더운 여름에도 매트가 깔아져 있음에도 슬리퍼를 신고 생활함
3. 주말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함. 코로나가 극성일 때도 주말엔 토, 일 모두 바깥활동을 하러 나감, 나가 있는 시간은 길고 집에 있는 시간은 짧게 있으려고 했음

※ 망치소리 일자(아래 일자 말고도 체크하지 못한 횟수가 여럿 있음)

- 2020년

- 9월13일 낮
- 9월15일 낮12경
- 9월16일 낮2시경, 저녁7시경
- 10월21일 저녁8시경
- 11월6일 저녁7시20분,25분 5분 간격으로 5~6차례

- 2021년

· 1월31일 오후6시15분

· 3월15일 오후7시30분

· 3월18일 오전11시

- 밑에서 매번 5~6차례 망치소리 냄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산 자락에 위치하며, 인근에 지하철 ○호선 ○○역과 내부순환도로가 위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사업장 및 도로교통 소음원의 영향이 적은 정온한 환경이다.

나. 당사자 주거 공동주택 현황

- 건 물 명 : ○○아파트
- 위 치 : ○○구 ○○로 ○○길 ○○(○○동○○)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200,119 m^2
- 규 모 : 지하1층, 지상15층(1,431세대)
- 주 용 도 : 공동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용승인 : 1997.9.30.

다. 당사자 방문상담 결과

- 신청인이 느끼는 피해 진술내용
 - 2020. 2월에 위층에서 이사 와서부터 아이 뛰는 소리와 쿵 쿵 던지는 소리가 심하여 주의하여 달라고 몇 차례 항의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
 - 아이 뛰는 소리에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소음이 나지 않게 주의를 요구하여도 시정이 안 된다.
 - 2020.11.08 저녁 퇴근 이후에 올라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 뛰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

- 식탁 주변과 작은방에 매트를 보완하여 밤늦은 11시 이후에 아이가 뛰는 소리와, 쿵 쿵 던지는 소리가 발생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 피신청인이 진술내용

- 2020. 2월부터 아이가 뛰는 소리가 심하며 항의를 자주 하였다.
- 보복성 소음으로 천장을 망치로 쳐서 오히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 망치로 천장을 광광 쳐서 깜짝 깜짝 놀라서 정신과 병원을 다닐 정도로 힘들다.
-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았으며, 아이들 훈육을 시켜 소음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층간소음 피해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 심문 및 진술 등으로 층간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일시 : 2021.3.12.(금) 15:00 ~ 3.13.(토) 15:00
 - 측정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측정장소 : 901호 거실
 - 측정구분 :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 주간 27 dB(A), 야간 26 dB(A)
- 층간소음 측정자료 분석결과
〈표1〉 1분 등가소음도(L_{Aeq})

구 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비 고
등가소음도 dB(A)	시간	1분	1분	
	기준	48	43	
	측정치	38	24	

〈표2〉 최고소음도(L_{AFmax})

구 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비고
최고 소음도 dB(A)	기준	62	초과횟수 (3회/시간)	57	초과횟수 (3회/시간)	
	측정치	61	바닥충격음 (3.13 10:46)	57	바닥충격음 (3.13 03:51)	
		59	바닥충격음 (3.12 18:23)	56	바닥충격음 (3.13 05:01)	
		59	바닥충격음 (3.13 14:42)	56	바닥충격음 (3.13 04:26)	

4. 판 단

- 당사자 주거 아파트는 1997년 9월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이며,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로,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비해 층간 슬라브 두께가 달라 소음에 좀 더 취약한 구조이며,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는 상황이며
- 또한 당사자 주거지역은 교통소음의 영향이 덜하고 배경소음도가 낮은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층간소음도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38dB(A), 최고 소음도는 61dB(A)로 측정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의 대응방법에 있어서 당사자 간 과한 언사 및 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보다 감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 이웃으로 남기 보다는 앞으로의 공동의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보금자리 삶을 위하여 서로의 소중한 생활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